

# 사회적 맥락과 유리된 사소한 것들의 역사

미시사 내세운 역사서들이 얻은 것과 잃은 것

이영석 | 광주대 외국어학부 교수

최근 붐을 이루는 ‘어떤 것의 역사’는 미시사의 본질과 차이가 있다. 대부분 통사적 서술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정교한 분석과 추론이 뒤따르지 않는다. 텍스트와 문헌에 나타나는 관련 사항을 한데 모아서 저자의 의도에 따라 재배열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그 ‘어떤 것’이 전체 사회와 유리되고, 사회와 집단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것처럼 과장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것은 일종의 환원주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대학에서 역사학은 다른 인문학 분야와 함께 거의 천덕꾸러기 신세로 떨어졌다. 역사는 실용성 없는 학문이라 낙인찍힌 채 대학 밖으로 밀려나는 추세다. 이런 위기는 대학 강단을 어슬렁거리는 연구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가슴을 때린다. 그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의 인문학이 위축됐다는 것이다.

## 아카데미즘 탈색한 역사서 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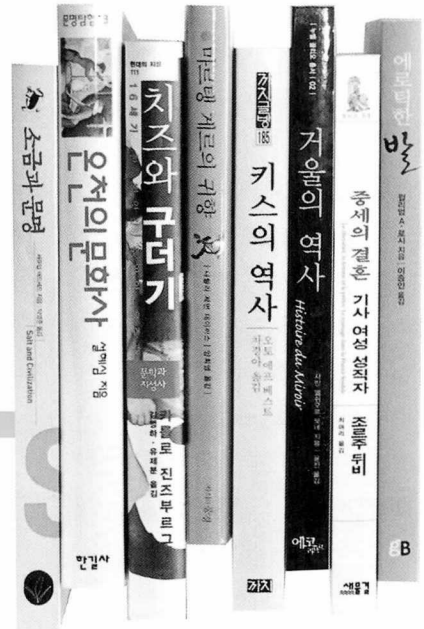
그러나 정작 대학의 경계를 넘어서면 역사는 이전보다도 더 사람들의 호기심을 끄는 것 같다. 방송의 사극을 비롯한 역사 관련 기획물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의 일이고, 서점가의 신간 코너에도 역사 서적들이 자주 눈에 띈다. 이 책들은 대부분 아카데미즘을 탈색한 느낌을 준다. 주로 옛날 사람들의 생활사를 쉽게 풀어쓴 것이거나, 전통 역사학과는 전혀 다른 주제를 서술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근래에는 역사의 르네상스가 찾아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서구 역사가들의 저술을 번역한 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사생활의 역사》(필립 아리에스 외, 주명철

외, 새물결), 《소금과 문명》(새뮤얼 애드세드, 박영준, 지호), 《은천의 문화사》(설혜심, 한길사), 《에로틱한 발》(윌리엄 A. 로시, 이종인, 그린비), 《거울의 역사》(사빈 멜쉬오르보네, 윤진, 예코리브르), 《키스의 역사》(오토 에프 베스트 외, 차경아, 까치), 《중세의 결혼》(조르주 뒤비, 최애리, 새물결), 《강간의 역사》(조르주 비가렐로, 이상해, 당대), 《이혼의 역사》(로더릭 필립스, 박범수, 동문선)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제목만 훑어봐도 전통적인 역사 서술과는 판이한 내용을 다룬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결혼, 사랑, 여가, 사생활 등 사람들 삶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공간이나 시간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다루기도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람의 몸에 관한 관심부터 설탕, 연필, 물고기와 같은 우리 주위의 평범하면서도 흔한 사물들의 역사를 서술한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특정한 주제 중심의 통사적 서술이라고나 할까.

언제부터가 이런 책들은 신문 서평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미시사’로 분류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경향은 주로 아날학파의 영향을 받았다. 물론 새로운 책들 가운데 《고양이 대학살》(로버트 단턴, 조한



욱, 문학과지성사), 《치즈와 구더기》(카를로 진즈부르그, 김정하 외, 문학과지성사), 《마르탱 게르의 귀향》(나탈리 제먼 데이비스, 양희영, 지식의풍경) 등 이제는 미시사 분야의 고전으로 알려진 저술이 눈에 띄고, 더 나아가 자크 르 고프나 조르주 뒤비와 같은 아날학파 역사가들의 책이 소개되는 것으로 봐 이런 주장도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새로운 스타일로 리얼리티 추구하는 미시사

그러나 새로운 경향의 주류를 이루는 ‘어떤 것의 역사’를 모두 미시사의 범주에 집어넣고서 아날학파의 영향을 강조하는 것은 약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듯하다. 우선 광차섭, 김기봉 교수 등이 국내에 소개한 대표적인 미시사 연구들은 ‘어떤 것의 역사’라는 식의 통사적 서술이 아니다. 카를로 진즈부르그, 나탈리 데이비스, 조반니 레비, 진 부르크의 연구는 과거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사소한 사건들을 다룬다. 이를테면 한 방앗간 주인에 대한

이단 심문, 10년만에 귀환한 남편의 진위 여부, 갈릴레이의 재판, 어느 젊은 여성의 결혼 소송 등이 서사의 주축을 이룬다. 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사건과 소수의 인물과 특정한 지방에 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재현한다. 이런 점에서 미시사가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적 경향과는 달리 오히려 리얼리티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특정한 개인의 실제 이름을 따라 사건을 치밀하게 뒤쫓고, 여러 가지 정교한 방식으로 사료를 읽어 나가면서 1차원적 실증을 넘어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해석을 뽑아낸다. 또 분석과 설명보다는 묘사와 이야기체 서술 방식을 따른다. 이들의 연구가 역사 서술에서는 보기 드물게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것도 이와 같은 서사성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미시사는 분명 사회학이 직면한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필자는 미시사가들이 사건을 재현하고 해석하는 방식의 정교함에 새삼스럽게 감탄한다. 언젠가 역사이론을 전공한 김현식 교수는 이들의 연구가 작은 실마리를 바탕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일종의 탐정놀이와 같다고 비유한 적이 있다. 탐정놀이라고 해도 좋겠지만, 나는 의사의 검진과정을 떠올리곤 한다. 의사는 환자의 예후와 증세를 근거로 진단한다. 그는 자신이 바라보는 어떤 증세를 곧바로 원인과 연결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지금의 증세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미시사가들이 사료를 통해 추론하고 추적해가는 작업은 이와 비슷하다. 미시사가 전통적인 역사학에 가져다준 충격은 무엇보다도 이런 엄밀한 태도와 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 정교한 분석과 추론 뒤따르지 않아

그러나 최근 흥수를 이루는 '어떤 것의 역사'는 미시사의 대표적인 서술들과 비교하면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특정한 것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미시사로 불려야 하겠지만, 대부분 통사적 서술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탐정놀이나 의사의 검진에 비유할 수 있는 정교한 분석과 추론이 뒤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텍스트와 문헌들에 나타나는 관련 사항을 한데 모아서 저자의 의도에 따라 재배열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 전체 사회와 유리되고, 더 나아가 그것이 나머지 사회와 집단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것처럼 과장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일종의 환원주의인 셈이다.

물론 이 '어떤 것의 역사' 식의 책들은 산업화나 계급과 같은 거시적 담론에만 익숙한 역사 연구자들에게는 새로운 자극으로 다가온다. 필자도 이런 새로운 경향을 접하면서 사회경제사의 울타리에 안주해온 자신의 나태함을 꾸짖는다. 더욱이 전통적인 역사학이 연구자 집단 안에서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어려운 언어를 고집하면서 일반 식자층과 유리된 오늘날의 현실을 반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단 이 책들은 독자가 별다른 부담 없이 곧바로 그 주제에 몰입할 수 있을 만큼 평이한 언어로 쓰여졌다. 어떤 책들은 중세 음유시인이나 이야기꾼의 방담(放談)과 구연(口演)을 듣는 듯한 착각이 들 만큼 뛰어난 서사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어떤 것' 만을 부조적(浮彫的) 기법으로 수면 위에 떠올리는 것도 중요하지 만, 그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맥락에서 균형 있게 자리매김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것은 '어떤 것' 들을 사회사의 날줄로 삼아 다시 섞어 짜야 가능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필자와 같은 사회사 연구자들이 이 새로운 경향을 마주 대하면서 과연 스스로 변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가의 문제다.

#### 서사성 획득을 위한 역사학자들의 노력 필요해

잃어버린 서사성을 되찾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을 새삼스럽게 깨닫는다. 이 서사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연구자마다 그 나름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사료를 통해 다단계의 진단을 거치는 정교한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사성은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듯한 스토리 중심의 형식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다단계의 추론을 거쳐 얻어낸 것들을 풍

경화 그리듯 묘사하는 데서도 서사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래 역사학계에 제출되는 논문에서는 수와 통계의 뒷에서 벗어나, 다루려는 주제를 어떻게 하면 흥미롭게 서술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역사학자는 가끔 어떤 사건을 흥미롭게 기술하거나 한 인간의 내면 심리를 꼼꼼하게 서술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통감한다. 그러나 필자의 경우 적어도 영국 근대사회에 관한 다양한 독서를 통해 근대의 특정한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멀리서 쳐다본 희미한 풍경을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최근에는 19세기 런던의 모습과 18세기 상인의 생활세계를 풍경화로 그린다는 기분으로 서술한 바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서사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사회사의 맥락에서 '어떤 것의 역사' 스타일을 실험해보고 싶다. 나는 이전에 산업혁명기의 공장에 관심을 기울여왔는데, 요즘은 가끔 자리에 누워 '공장의 역사'라는 책을 쓰는 공상에 빠진다. 그것은 단순히 작업장과 공장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라는 창을 통해 사람들의 삶과 그 삶의 변화를 엿어 짜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

**이영석** 교수는 성균관대 사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광주대 외국어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지은 책으로 《산업혁명과 노동정책》 《다시 돌아본 자본의 시대》 《유럽의 산업화와 노동계급》(공저), 옮긴 책으로 《영국민중사》 《역사학을 위한 변론》 등이 있다.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김기봉, 푸른역사)에는 미시사의 개념과 특징 등이 잘 정리돼 있다. 이 책에 따르면, 미시사는 그 동안 사회 구조사와 같이 커다란 구조와 과정의 인식으로부터 소홀히 취급된 개인들의 삶을, 구조라는 뼈대에 살을 붙이듯 그에 대한 역사서술을 통해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미시사는 자연과학의 카오스 이론이나 양자론처럼 우연과 필연, 부분과 전체의 관계 설정에서 혁명적 전환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을 역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상승시키고자 한다.